

## 제6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1. 일 시 : 2008. 05. 28(수), 16:00~16:30

2. 장 소 : 율곡관 2층 제1회의실(204호)

3. 참 석 : 총 11명 중 7명 참석

참석 평의원 : 이일영 의장, 유승화 평의원, 유승익 평의원, 오상탁 평의원  
이화숙 평의원, 김찬영 평의원, 김관영 평의원 (이상 7명)

불참 평의원 : 이원희 부의장, 이순일 평의원, 강태현 평의원, 박운규 평의원 (이상 4명)

4. 개회선언

의 장 : 재적평의원 11명 중 7명의 평의원이 참석하셨기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위원회 회의 개최를 선언합니다. 안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논의사항

간사 이중환 : 이번 회의의 안전은 지난 5차 회의에서 의제로 정한 대학평의위원회 구성 및 평의원 후보 자격 변경에 관한 논의사항입니다. 직원회와 총학생회에서 제출한 의견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 : 간사 이중환>

1) 관 련

- 제5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2008.5.7)
- 아주대학교직원회 제1회(2008.5.27), 아주대학교 직원회 평의원회 안전 상정 요청
- 대학평의위원회 정관 개정 요구안 및 요구안 비교 (총학생회)

2) 주요 내용

- 직원회 요청사항
  - 직원을 대표하는 대학평의원의 추천 및 위촉자격 완화
  - 5급 이상의 정규직원 → 7급 이상의 정규직원
- 총학생회 요청사항

< 간서명 란 >

의 장



- 학생대표 평의원 수 증가 : 1명 → 2명 (전체 평의원 수 : 11명 → 12명)
- 직원을 대표하는 대학평의원의 추천 및 위촉자격 완화
- : 대학교는 5급 이상, 전문대학은 7급 이상의 정규직원 중 추천한 자  
→ 직원회에서 추천한 자 (직급 규정 삭제)

(간사가 대학평의원회 구성 및 평의원 후보 자격 변경에 관한 논의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칩니다.)

의 장 : 직원의 직급 부분에 있어 2가지 형태가 있군요. “5급 이상의 정규직원”을 “7급 이상의 정규직원”으로 하는 것과 직급에 관한 규정을 없애고 “직원회에서 추천한 자”로 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간사 이중한 : 직원회에서 요청한 것은 “5급 이상의 정규직원”을 “7급 이상의 정규직원”으로 하는 것이고, 직급에 관한 규정을 없애고 “직원회에서 추천한 자”로 하는 것은 총학생회에서 의견을 보내면서 직원의 직급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의 장 : 네, 교수부분도 부교수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가능하면 직급 부분을 함께 없애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평의원 오상탁 : 직원의 직급을 5급에서 7급으로 요청한 부분은, 입사 후 최소 3년 이상 경험이 있는 직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자동차대학도 7급으로 되어 있으므로 동일하게 7급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 장 : 네, 그러면 직원회에서 요청한 의견으로 하지요. 혹시 이의가 있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의원 김찬영 :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은 평의원회가 처음 생겨서 얼마나 효력이 있는 단체인가에 대해 제가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안이 만장일치가 되면 이사회에도 상정해야 하는데, 어떻게 진행할지를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의원회 학생 수를 2명으로 증원함에 대한 전원 통과 내용 안건이 어떻게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이 될 것이며, 상정 후의 결과에 대해서도 행동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 장 : 아주대학교 총장님께서 법인의 이사이므로 총장님께서 이사회에 이 안건을 상정해야 할 것이고, 이사회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더 강력하게 요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평의원 김찬영 : 제가 총장님을 여러 번 찾아가 평의원회에 대해 말씀드렸던 것은 학생대표가 2명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이었고, 이사장님께서도 이를 말씀드렸습

< 간서명 란 >

의 장



니다만 확답을 듣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이를 거부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여기서 논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회에서 학생 수 증원에 대한 평의원회의 만장일치 의견을 묵살한다면 명확한 행동방향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물론, 평의원회의 의견이 받아들여진다면 이상적인 것이죠.

의 장 : 그 부분은 결과를 보고 언제든지 다시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진행상황을 보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의원 김찬영 :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까?

의 장 : 네, 법인에서 2명, 아주대학교에서 2명, 아주자동차대학에서 1명을 추천하여 구성을 했습니다. 이사 1분은 아주대학교에서 추천한 분이 되었고, 감사 1분은 아주자동차대학에서, 나머지 이사 2분은 법인에서 추천한 분이 되어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평의원 김찬영 : 평의원 중에서는 개방이사 또는 개방감사가 없는 것입니까?

의 장 : 네, 아주대학교 현직에 계시는 교수님들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오늘은 안건이 더 이상 없으므로 이상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의원 김찬영 : 그러면 이 안건이 이사회에 상정되는 것입니까?

의 장 : 안건을 총장님께 보고하고 총장님께서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의원 오상탁 : 제5차 대학평의원회 회의에서 평의원 명단과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것으로 결정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간사 이중한 :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의원 오상탁 : 직원회 대의원회를 할 때 대의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해 하셨습니다.

간사 이중한 : 학교 홈페이지에 메뉴를 구성하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의 장 : 네, 빨리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태헌 평의원님과 박윤규 평의원님께서 다음 회의에는 참석하실 수 있도록 일정 조정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6. 폐회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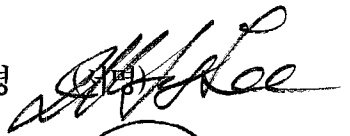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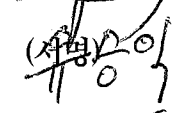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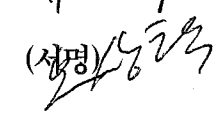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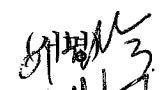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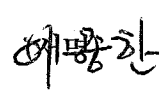
의 장 : 이상과 같이 논의사항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6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원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2008년 5월 28일

의 장	이 일 영	(서명) 
평의원	유 승 화	(서명) 
평의원	유 승 익	(서명) 
평의원	오 상 탁	(서명) 
평의원	이 화 숙	(서명) 
평의원	김 찬 영	(서명) 
평의원	김 관 영	(서명)
간 사	이 중 한	(서명) 
기 록	김 주 용	